여덟번째 회의: 2021.5.13(木)

김윤기, 김민규, 오휘찬, 백기원, 팀원전부 출석

회의내용: 최종 유스케이스 정의서 진행 정도에 관해

오휘찬🡪피드백 반영한 것. 수정사항 말씀해주세요

김민규🡪사전조건 개시조건 보고 있었는데 미완성 상태인것같다.

김윤기🡪맞춤법검사, 사전조건, 개시조건, 수정 했는데 지금 UC를 너무 범주를 크게 잡아서 손을 못댔는데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,

백기원🡪정상처리 이외의 따로 시나리오 작성을 했고, 결제관리 이전에 결제 유효성 테스트UC가 필요하지 않나 교수에게 질문을 했더니 교수는 유효성 테스트는 결제관리 안에 있는게 낫다고 하였다.

오휘찬🡪피드백 반영해서 수정중, 특이한 예외사항 발견하지 않음.

회의내용: 최종 유스케이스 범주

김민규🡪결제 이전에는 유스케이스의 범주가 큰것같다.

오휘찬🡪문제의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…?

백기원🡪유스케이스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.

김윤기🡪애매한 것 같다. UC를 쪼개자니 너무 디테일하고, 놔두자니 너무 애매하다…

김민규🡪윤기형과 음식검색 파트를 합치면 되지 않을까?

김민규🡪매장검색, 음식선택을 나눈것같은데?

백기원🡪옵션선택과 같은것도 음식 주문의 범주로 볼수 있는것같다.

백기원🡪음식주문의 개시조건은 가맹점의 선택, 교수도 그렇게 말했음.

오휘찬🡪스코프를 정하는게 좋지 않을까?

회의내용: 유스케이스 스코프 정하기

오휘찬🡪처음부터 다시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. 그런 느낌으로 원래있던 것은 없다 치고,

나머지 팀원들🡪동의합니다.

김윤기🡪음식을 선택, 옵션 보여주기 이것은 주문인데 이것은 음식결정(?)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.

오휘찬🡪음식을 선택, 옵션 보여주기, 매장검색까지 음식 검색 범주에 넣자.

오휘찬🡪주문(담는 것은 끝났다고가정) 주소, 쿠폰, 요청사항

마치며:

예를 들어서 UC007경우에는 적을 때 음식검색(매장검색)이렇게 적는것으로

회의 결과:

- 음식 검색 UC007. <- 매장 검색, 음식 선택

-- 매장 검색

-- 음식 선택

--- 음식 옵션 선택

- 음식 주문 UC008. <- 요청사항 추가, 주문 확인, 주소확인

-- 주소확인/설정

-- 메뉴 추가 하기

--- 다른 매장 메뉴 추가

-- 담긴 메뉴 삭제

-- 쿠폰 적용 여부

-- 요청사항

--- 가게 사장님

--- 배달 기사님

-- 결제 수단 선택 UC013 - UC014

- 음식 결제 UC012\*

-- 유효성 검사 UC020 <- 계좌 검사, 잔고 검사

--- 계좌 검사

--- 잔고 검사

- 배달 완료 대기

-- 배달 취소 UC009.

-- 진행상황 확인

-- 매장/라이더 전화

- 배달 완료

5월 17일 월요일 6시에 회의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.